



[라이프] 두부면·두부텐더 풀무원 단백질시장 정조준



Life

[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 치료제·백신 비임상 결과 발표 L2



# 서울시민 “성인지 예산, 평등한 권익 증진에 초점 맞춰야”

### 女·男 모두를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 서울시, 실효성 강화 위해 의견 모아 워라밸 문화, 젠더 교육 강화 등 의견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풀뿌리 의견 모으기에 나섰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민 이모 씨는 “성인지 예산은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성, 여성 각 성에 적합한 사회복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물학적 남성, 여성 이분법적인 방법론이 아닌 폭넓은 사회적·심리적 성의 인식을 포함한 대책과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의 서울’에 따르면 내년 성인지 예산 운영에 있어 우선시 되어 할 성평등 목표를 묻는 질문에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시민 87명이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는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한 권익 증진을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백모 씨는 “‘여자니까~’, ‘남자라서~’ 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모 씨는 “아직도 사회에서 온전하게 남녀가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능력 위주로 공평한 대접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안모 씨는 “현재 우리 사회에 젠더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젠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모 씨는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업무 배치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성인지 예산이 성별 수혜 격차를 완화하고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보고,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성인지 예산은 3조6082억9000만원으로, 전년 3조250억2000만원과 비교해 5832억7000만원(19.28%) 증가했다.

시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다’, ‘별도로 편성해 예산만 늘린다’, ‘효과가 없다’ 등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오해가 많으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다.

우선 시는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에서 교육 프로그램 시간대와 관심도 차이로 여성 참여자의 비중이 높아 남성이 쉽게 참여하고 관심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이 성평등한 예술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성인지 예산은 기존 예산 사업 가운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을 선정, 성별 수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로 별도의 예산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시는 덧붙였다.

성인지 예산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시는 남녀가 함께 임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남성 검사를 확대해 난임을 조기에 검진하거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시는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성평등한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사회 안전 보장 ▲성별 맞춤형 사회복지 지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총 6개 중 우선 추진해야 할 부문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한마디 거두고 싶은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카카오택시 실태조사... ‘골라태우기’ 없앤다

### 서울시, 플랫폼 택시 편법운영 조사 민·관·학 TF팀 가동,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고자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카카오택시 이용불편 현장 실태조사 ▲하위로 예약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플랫폼택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학 TF팀 가동을 골자한다.

먼저 시는 택시 플랫폼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서비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가 맵택시 ‘몰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조사·분석 결과는 카카오측에 전달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택시앱을 악용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은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일대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곳에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위로 예약 표시 등을 켜놓거나 빈차 표시등(택시 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한 채 카카오앱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기사다.

택시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객법 21조 및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택시업계 스스로 플랫폼 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서울시와 택시업계, 플랫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TF팀’을 가동키로 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 안심승하차존 201곳 운영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이하 안심승하차존) 201곳을 운영키로 했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양 끝에 파란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 모습. /서울시

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 ‘WeGO’ 10주년 기념총회 DDP서 개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세계 50여개 도시 등 150여명 참여

서울시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제5차 총회’(이하 서울총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서울시 주도로 창립한 스마트도시 분야

최초·최대 국제회의체다. 올해 서울총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모스크바, 웰링턴, 청두, 방콕, 울란바토르를 포함 50여개 도시와 국제기구, ICT 기업 등을 대표하는 150여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뉴노멀 시대 모두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총회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영상)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개막식) ▲WeGO 지속가능도시 어워드 시상식 ▲기구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본회의 ▲도시, IT기업 홍보 등이 이어진다.

본회의에서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전문 국제협력 기구로의 재도약을 위한 WeGO의 중장기 전략계획이 발표되고, WeGO의 발전을 위한 의제들이 논의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14일 (木) 음력 : 9월 9일

수도권 날씨 16 ~ 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39 | 해질 / 17:57

지역별 날씨: 연천 13/23, 동두천 13/23, 가평 11/22, 파주 13/23, 서울 16/23, 양평 14/23, 인천 17/22, 수원 16/23, 용인 16/23, 백령도 17/21, 평택 14/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미 안보당국, 비핵화 문제 돌파 의지 재확인  
▲美, 부채한도 일시 증액안 하원 가결...바이든 서명 앞뒀 /사진 뉴시스

▲中 석탄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8% 급등  
▲기시다 총리 “올해 아프간에 220억 엔 지원할 것”



▲국제유가가, 당분간 상승 전망...이틀째 80달러선 유지 /사진 뉴시스  
▲美법원, “종교적 사유의 백신 접종 거부 인정”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